

# 집단소속감, 평가방법 및 정보의 공개가 내외집단원의 수행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

홍 기 원

호서대 산업심리학과

특정한 집단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와 성과평가 상황이 달라지면 내외집단원들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실험 1에서는 집단소속감과 정보의 공개여부, 그리고 평가방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고, 실험 2에서는 집단소속감과 성과의존에 따라 차별적인 지각이 나오는 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하위집단들은 모두 핵심적인 집단이 한 수행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주변집단에 속한 성원들이 한 평가치에서 변량이 더 크게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성과평가의 정보가 공개와 평가방법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주변집단원들은 절대평가이고 비공개시에 더 높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집단들이 서로 의존하는 상황에서도 핵심집단의 성과가 과다추정되었으며, 주변성원과의 편차가 크게 나왔으나, 성과비의존 상황에서는 그러한 편차가 줄어들었다. 주변집단이 성과의존시 핵심집단의 성과를 높게 나왔는데 이는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 내외집단의 성과가 평가될 때 편파를 줄이려면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한 성과를 평가하거나 판단시에 서로 상대방을 차별하는 주관적인 편향이 있으며 이러한 편향의 강도는 집단의 성과, 평가가 이뤄지는 방식, 그리고 수행기준의 모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Allport, 1954; Hinkle & Schopler, 1986). 그런데 종래까지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구성원의 수나 세력, 지위 등에 있어서 주로 동등한 집단을 다루었고 내외집단 내의 하위집단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왔다. 그러나, 내외집단 간의 지각문제를 다루는 때는 내외집단들이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비동등집단이고 각 집단 안에서도 하위집단들이 구분되는 상황을 다루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설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동서의 문제 및 장차 남북의 문제를 이해하는데에도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성과편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얼마 전에 남북간에는 55년 만에 정상회담이 열려 통일을 향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회담을 위한 환영행사 및 회담진행과정에서 보여 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전에 준비된 연출에 남한은 물론 전세계가 놀랐다. 이러한 외양상 북한의 통일된 모습이 북한의 전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일부의 경계도 있었다. 실제로 우리가 본 것은 북한 당국이 생각하는 400여 만명의 핵심계층으로서 나머지 우호계층과 적대계층들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선택된 주민들이 사는 평양의 모습은 북한의 일부일 뿐인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간에 동서의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양강도와 자강도 등의 행정구역이 재편되었다는 점은 북한의 주민들도 여러 하위집단들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각 하위집단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에서의 동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영호남 간의 지역갈등 양상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으나 강원, 충청지역의 소외감이 깊어지는 새로운 지역주의 양상이 보고된 바 있다(중앙일보, 1999년 7월 28일자). “영호남 갈등” 또는 “호남소외”로 특징지어온 기존의 지역갈등은 정권교체 후에 적어도 호남인들의 지각에 있어서는 누그러들었으나 지역주의 경향이 비교적 낮았던 강원 충청지역이 정치 경계면에서 강한 소외감을 드러내었다. 즉, 지역갈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강원지역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충청, 경기 지역의 순으로 나왔으며, 과거 지역문제에 가장 민감하던 호남출신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서울지역민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38년 동안 영남정권에 의하여 상대적 소외를 느끼던 호남지역 대신에 이번에는 영남지역민들이 자동차와 신발산업의 침체와 맞물려 새로운 소외지역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소외감을 느끼는 주체가 바뀌고 그 양상이 다원화되기는 했지만 척결해야할 지역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과 이후의 영호남 간의 지역총생산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영호남의 지역생산량은 11.0% 대 30.6%이었고 집권 이후에는 그 비율이 9.0% 대 30.6%로 오히려 집권 지역의 생산량은 감소한 실정이다(통계청, 1995; 1998). 또한 강원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지역토박이들은 외지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은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토박이들보다 다른 지역에서 옮겨 온 사람들이 지역사정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고 가정할 때 토박이들의 소외의식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홍기원, 2000). 이러한 경험적인 결과들은 우세집단과 열세집단들이 모두 우세집단의 한 성과를 더 높게 지각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집단소속에 따른 차별적인 성과지각 가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열세지역민들이 우세지역민들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호한 자극을 주면 그 자

극은 결핍된 욕구를 투사시키는 대상으로 본다(연구들이 있다(Lambert, Solomon, & Watson, 1949)). 즉 가난한 아동들이 동전의 크기를 과다하게 추정하듯이 열세집단의 성원들은 동일한 성과를 더 높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Sherif, Harvey, Hood, White, 및 Sherif (1961)가 한 Robber's Cave 연구에서도 우열집단 간의 성과편파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11세 된 두 소년집단들이 경쟁적인 과제를 하여 승패를 경험한 후 두 집단들이 작업한 것으로 알려진 성과(실제로는 동일)를 보여주고 이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서로 내집단이 더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지각하였는데 승리집단보다는 패배집단에서 더 큰 편파를 보였다. 따라서 우세 및 열세집단으로의 집단소속감이 구분되면 열세집단의 평가편파가 더 크게 일어난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속한 국적, 성별 또는 직업과 같은 사회적 범주들로 표현하며(Billig, 1985; Fiske & Pavelchak, 1986), 이러한 범주화 과정은 사람들이 사회적 세계를 생각할 때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나 자존심에 대한 지각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Baumeister, 1991; Hogg & Abrams, 1988).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므로 자신들이 속한 사회적 집단이나 내집단을 호의적으로 보려고 한다(Crocker & Luthanen, 1990; Sedikides, 1993; Tajfel & Turner, 1986). 여기에서 내집단원들 중 누가 가장 더 외집단 격하를 보이기 쉬운 것인지와 이들 내집단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외집단 격하를 가장 나타내기 쉬운 지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내집단에 동일시하는 수준에 있어서의 개인차와 내집단 위협 정도에 대한 지각에 초점을 두어 왔다. 내집단원들 중에서 내집단에의 정체감의 정도가 다른 것은 각 집단 성원들의 자기-개념속에 그 집단이 얼마나 자리잡고 있는지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Wann & Brabscome, 1993). 또한 내집단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서 얼마나 “전형적(prototypic)”인 성원인 지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Turner, 1985). 즉 어떤 성원들은 다른 성원들보다 그

가 속한 집단의 규준(norms)들과 잘 들어맞으며, 어떤 성원들은 다른 성원들보다 “더 전형적인” 내집단성원들의 예로 정의되기도 한다. 내집단의 전형과 부합되는 집단성원들은 핵심적(core) 내집단원이라고 할 수 있고 덜 전형적인 사람들은 주변적(peripheral) 내집단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종래의 지역민들 안의 핵심성원은 영남 혹은 호남이 되고, 남북한간에 있어서는 남한 또는 북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경험적인 증거들은 주변적인 성원들이 핵심적인 성원들보다도 더 외집단격하를 보인다는 가설을 지지하여 왔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은 일부 사람들의 성정체성(性正體性)의 불안정성과 관련 있고 (Herek, 1987), 미국 내에서 백인사회의 주변에 머물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흑인들의 처지와 비슷하게 가난한 백인들이 부유한 백인들보다 더 심한 인종편견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며(Katz, Wackenhut, & Hass, 1986), 유태인들 중에서도 유럽출신과 중동출신들 사이에 아랍인에 대한 인종적 태도에 있어서도 중동출신들이 더 큰 편견을 보이는 차이를 보였다(Peres, 1971). 위에서 보아 온대로 경험적 증거들과 실험적 연구들은 주변적인 성원들이 핵심적인 위치의 성원들보다 더 큰 성과편파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하위집단 간의 차별적인 성과지각 가설).

내외집단원들 간의 성과평가에 관한 정보가 타인들에게 알려지는지도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주변적 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내외집단들에 대하여 가진 태도가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다른 내집단원들과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내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경우보다 더 외집단격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변적 성원들이 보이는 외집단격하는 자기-표현적 기능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Noel, Wann, 그리고 Branscombe(1995)는 주변적 성원들과 핵심적 성원들이 공개적 조건과 비공개적인 조건을 구분하여 외집단격하의 정도를 알아 본 연구에서 주변적 성원들은 동일 집단 내의 다른 핵심적 성원들이 자신들의 반응을 알게 되는 경우 외집단에 대한 격하를 더 크게 보였고 자신들의 반응이 다른 내집단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과편파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성과평가의 편파가 다르게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정보의 공개에 따른 차별화된 지각가설).

또 평가방법에 따라 내외집단의 성과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연구(예: 홍기원, 1994)에서처럼 평가방법이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핵심-주변집단원의 지위가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련의 경쟁을 통하여 승패를 경험한 두 팀들 중 승리한 팀은 상대평가시에 내집단의 성과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승리를 하거나 우세를 점한 집단은 상대평가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반면에 패배하거나 열세 위치에 놓인 주변적 성원들은 절대평가를 더 선호할 것이다. 그리하여 핵심집단원들은 객관적인 성과차이를 상대평가로 보려고 하지만 주변집단원들은 그러한 객관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절대적인 평가에 의존하기 쉽다는 것이다(평가방법에 따른 차별적인 지각가설).

#### 성과의존과 성과편파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집단 간에 존재하는 편견이 사회화의 산물이므로 재사회화를 통하여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었다. 예를 들어 인종 간의 편견은 4세 아이들에게서도 보이는데 이는 초기 사회화로 생긴 것이므로 교육을 통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Gooman, 1964; Campbell, 1971).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신념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들이었다. Bennington대학에서의 신입생들이 선배와 교수들과 장기간에 걸친 접촉으로 보수적인 태도에서 진보적인 태도로 변화를 관찰한 Newcomb(1943)의 연구들이다.

편견을 줄이기 위한 접촉방법은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즉, 상호교류가 밀접해야 하고, 평등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고, 협동적인 상호의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들이었다(Allport, 1954; Rose, 1981). 이들에 근거한 프로그램들인 접촉의 증가, 공동목표의 제시, 매체 및 교육의 활용, 심리치료, 사회화 과정의 관여 등이 제시되었으나 대규모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편견감소가 어떤 기제를 통하여 감소되는 지에

대하여는 입증된 것이 없다(Stephan, 1985).

외집단원들에 대하여 나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더라도 그들과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상호작용을 통한 이익의 기대 등 개인의 동기가 개입되어 다소 덜 부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즉, 어떤 동기나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Kurganski, 1989; Kunda, 1990, Pyszczynski & Greenberg, 1987). 따라서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하는 “결과의존상황”에서는 자신이 얻을 결과를 정당화시켜 주는 동기가 개입되면 인지적편파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지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보다는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합리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이다(Darley & Gross, 1983; Pyszczynski & Greenberg, 1987).

결과의존 상황을 다룬 연구들은 목표인물에 대한 호감이 증가된다는 결과를 내었다(유재호, 1993). 성적 문제, 사회적 문제, 수행과제를 다루는 결과의존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기대되는 목표인물에 대하여 더 큰 호감을 보였는데, 이는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라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목표인물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도록 동기화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Bersheid, Graziano, Monson, & Dermer, 1976; Darley & Berscheid, 1967; Neuberg & Fiske, 1987; Tyler & Sears, 1977). 결과의존이 목표인물에 대하여 더 많은 주의를 하게 하고 더 사려깊은 정보처리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Erber & Fiske, 1990; Neuberg & Fiske, 1987; Ruscher & Fiske, 1990). 그리하여 성과의존 상황에서는 내외집단에 대한 성과편파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성과의존에 따른 차별적인 가설).

####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집단소속감, 정보의 공개, 평가방법, 그리고 성과의존이 동일한 성과를 보고서도 차별적인 지각을 하게 만드는 성과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핵심집단과 주변집단으로의 집단소속감, 자신의 반응이 다른 실험 참가자에게 알려준다는 공개 조건과 그렇지 않은 비공개 조건, 또한 핵심-주변집단원의 성과를 짝지워 보이는 상대평가와 한번에 핵심이나 주변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원의 성과를 별도로 보여주는 절대평가 상황을 설정하였다. 위에서 제기된 소속집단에 따른 차별적인 성과지각 가설, 정보공개에 따른 차별적 성과지각 가설, 그리고 성과평가방법에 따른 차별적인 성과편파 가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1) 핵심집단과 주변집단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핵심-주변 집단원들의 성과를 추정할 때에 핵심성원들의 성과를 주변성원의 성과보다 더 높게 추정할 것이다, (2) 이러한 경향성은 핵심집단 보다는 주변집단원들로 하여금 덜 안정적인 지위에 있어 주변집단원들이 핵심집단원의 수행결과를 추정시 더 많이 추정하는 편파를 보일 것이다, (3) 핵심집단은 주변집단에서보다 더 전형적이고 더 집단의 규준에 잘 들어 맞으므로 다른 집단원들과의 상대평가에도 자신감을 갖지만 주변집단원들은 그러한 상대비교 보다는 한 번에 한 집단씩 평가하는 절대평가시에 더 자존심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주변적인 성원들은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시에 더 큰 편파를 보이는데 비하여 핵심적 성원들은 상대평가시에 더 높은 편파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4) 핵심집단에서는 자신의 평가 결과가 다른 핵심집단에 공개되어도 자신의 지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열세집단은 자신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른 내집단들로부터의 안정적인 집단소속감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핵심성원들은 공개조건과 비공개조건에서 평가상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주변성원들은 비공개적이고 절대적인 평가시에 더 높은 평정을 받을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성과의존이 편파를 줄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집단소속과 성과의존 상황을 만들어 편파의 정도를 보고자 하였다. 실험 2에서도 (1) 실험 1에서처럼 핵심집단의 성과가 높게 추정되는 등 집단소속에 따라 차별적인 지각을 보이고, (2) 주변집단에서의 편차변량이 더 크며, (3) 성과가 의존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보다 지각 대상을 있는데로 지각하기 보다는 자신이 원하거나 이익을 기대하는 쪽으로 합리화시키려는 동기가 작용하므로 핵심집단과 주변집단 두 집단 평가 모두에서 더 높은 추정을 보이고, (4) 이러한 경향성은 핵심성원의 성과를 평가시에 더 큰 동기를 가져 더 높은 추정을 보이고, 특히 주변성원들은 핵심성원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민감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실 험 1

### 방법

**실험참가자 및 설계.** 심리학관련 교양과목을 이수 중인 168명의 호서대생들을 실험참가시 가산점을 주는 조건으로 한번에 4명씩 참가하게 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2(내집단의 지위: 핵심집단 또는 주변집단) × 2(공개 또는 비공개) × 2(평가방법: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 2(평가대상: 핵심성원 또는 주변성원) 중 맨 뒤의 요인은 반복측정인 혼합설계로 구성되는 각 조건들 속에 21명씩 무선적으로 배정하였다.

**도구.** 실험실 안에는 피험자들이 앉을 4개의 책상들과 공동으로 작업을 할 탁자, 앞쪽에는 스크린, 피험자들이 앉은 책상 뒤에는 OHP를 설치하였다. 각 책상 위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실험과제에 대한 지시문과 응답지들이 올려져 있고 탁자 위에는 4벌의 플라스틱쟁반이 놓이게 하였다. 플라스틱쟁반 위에는 노란 색의 콩알(직경 0.6cm) 약 2000개와 붉은 색의 팥알(직경 0.7cm) 약 2000개가 들어 있었다. 그밖에 콩알을 담을 수 있는 종이컵과 초시계가 비치되었다. 4명이 앉은 책상과 종이컵에는 1부터 4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도록 하여 나중에 누가 한 작업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콩알의 개수를 측정하는 저울과 각 참가자의 번호가 들어 있는 명찰 4개도 준비하였다.

**절차.** 피험자들이 4명씩 실험실에 도착하면 바구니에 들어 있는 1부터 4가 적혀있는 번호표를 하나씩 고르게 하고 각 피험자들이 고른 번호가 적힌 책상에 앉도록 하였다. 실험자는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수학적 능력과 동작 민첩성의 상관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전문적인 직업에서의 성공은 수학적 능력과 동작의 민첩성이 중요하다는 가설이 나왔는데 그러한 가설이 맞는 지를 검증하려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실험자는 컴퓨터에 제시된 문제들을 풀어서 자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들이 반응을 한 후에는 실험참가자들과 연결된 실험자의 컴퓨터에 그 결과가 자동으로 채점되어 그 결과를 참가자들의 화면에 점수를 알려주는 것처럼 하였다. 실제로는 사전에 정해진 대로 대학생들의 성적분포를 4등분으로 나누어 표시한다면 상위 2분위 또는 1분위에 해당된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하여 2분위에 속한 사람들은 주변집단이 되고 1분위에 속한 사람은 핵심집단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집단구분은 실제 실험참가자가 화면에 제시된 과제를 한 수행 성적이 아니라 사전에 무선적으로 정해진 실험계획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었다.

이어서 전문직 진출과 관련된 동작민첩성을 측정한다고 하면서 작업대에서 콩알줍기를 하여 동작 민첩성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쟁반 위에는 노란색의 콩알과 붉은 색의 팥알이 들어 있는데 가능하면 20초안에 빨리 노란색의 콩알만을 컵에 주워 넣되 잘못하여 팥알이 들어간 경우는 벌칙으로 팥알의 3배를 콩알수에서 빼고 하였다. 한번 연습시행 후에 종이컵을 회수하고 피험자를 자리에 앉힌 후 작업성과를 알려 주었다. 실제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 검사결과와 대학생들이 평균적으로 20초 동안에 담은 개수(평균 60개)를 알려 주었다.

이어서 먼저 작업한 핵심성원 및 주변성원들이 작업한 콩알을 접시에 담아서 투영기로 비추어 주고 콩알의 수를 추정하라고 하였다. 이때 컴퓨터의 다음 화면에서는 피험자들의 응답이 공개되는 것과 비공개되는 조변을 하는 기술문들이 나타나게 하였다. 즉 각자가 평가하는 응답내용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제시되며 나중에 2-3분간 잠깐 모여서 토의를 할 예정인데 이때 콩알의 수 추정에 대한 평가에서 자신이 몇 개라고 추정했는지 또 어떻게 그러한 평가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한 공개조건과 각자가 평가하고 응답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제시되지 않으며 나중에 실험이 끝나면 잠깐 모여서 토의할 예정인데 토의에서는 대학생활 중 동아리 참여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는 비공개조건이 되게 하였다.

이어서 성과평정을 위한 지시문을 읽게 하였다. 콩알의 개수를 추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방해되므로 한 사람씩 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옆방에서 실험보조자의 지시를 받다가 차례가 되면 콩알 개수추정을 하도

록 하였다. 투영기로 먼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작업한 공알의 모습과 이들이 속한 집단을 표시하는 '1분위', '2분위' 등으로 표시가 함께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어서 각자가 평가한 결과가 정확한 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평가한 참가자에게는 실험참가점수 4 - 6점으로 정해진 점수에서 최고점을 준다고 하였다. 내외집단원들의 성과추정을 위하여 투영기로 먼저 실험을 한 사람들이 주운 공알의 모습을 접시에 담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때 1명씩 차례로 보여 주고 응답지에 그 개수를 추정하게 한 절대비교 조건과 투영기로 먼저 실험에 참가한 '1분위', '2분위' 등에 속한 두 사람들이 작업한 공알의 모습과 이들이 속한 집단의 표시를 보고 두 사람의 작업결과의 개수를 추정하게 한 상대비교 조건이 되게 하였다. 이어서 "1분위"와 "2분위" 유형을 통보받고 난 후의 기본과 내집단 지위에 대한 조변을 검증하는 질문지를 제시하였다.

1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다른 참가자는 옆방에서 실험 보조자가 나눠 준 작업지에 4자로 된 영어단어의 끝말 잇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 단어잇기는 참가자들이 공백 기간에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은 채 자기 차례가 오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개수 추정과제를 할 수 있도록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개수 추정이 끝난 참가자는 옆방에 가서 새로 단어잇기를 하여 다른 참가자와 상호작용 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한편 실험보조자는 단어잇기의 목적이 앞서 과제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동작의 민첩성이 단어잇기로도 적용되는지를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공알개수 추정이 끝나면 실험자는 이를 회수하고 예정된 토의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실험에 대한 이해도와 의심되는 내용을 확인 후 사후해명을 해 주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조작확인.**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의 소속집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자신의 수학능력을 지각한 결과에서도 10점 척도상 핵심집단(7.48)이 주변 집단(6.68) 보다 높게 지각하여 유의한 집단차이를 보였다,  $F(1, 161)=14.753, p<.001$ . 다른 대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추정하게 한 문항에서도 10점 척도상 핵심집단(7.49)이 주변집단(6.76) 보다 더 높게 추정을 하였다,  $F(1, 161)=20.66, p<.01$ .

**성과평가.** 핵심집단과 주변집단에 소속된 참가자들의 집단소속, 정보의 공개 여부, 평가방법에 따른 평정치가 표 1에 나와 있다. 각 참가자들이 평정치를 2(집단소속: 핵심집단 또는 주변집단) × 2(정보의 공개: 공개 또는 비공개) × 2(평가방법: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 × 2(평가대상: 핵심성원 또는 주변성원)인 혼합설계의 변량분석(평가대상은 피험자내 변인)을 하였다. 여기서는 집단 소속감을 핵심집단과 주변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이 속한 성원들의 핵심성원과 주변성원으로 구분할 것이다. 이하 분석 시에 집단 소속감(A)은 핵심성원(a<sub>1</sub>)과 주변성원(a<sub>2</sub>)으로, 정보의 공개(B)는 공개(b<sub>1</sub>) 및 비공개(b<sub>2</sub>)로, 평가방법(C)은 상대평가(c<sub>1</sub>) 및 절대평가(c<sub>2</sub>)로, 그리고 평가대상(D)은 핵심성원(d<sub>1</sub>)과 주변성원(d<sub>2</sub>)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핵심 - 주변 집단들원들이 수행한 성과 평정에서 핵심성원(67.62)은 주변성원(55.37)보다 더 높게 나왔다.  $F(1, 161)=447.78, p<.01$ . 핵심 - 주변의 두 집단소속과 핵심 및 주변성원들의 두 평가집단에 대한 성과편파에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는데, 그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집단에서는 핵심성원(65.64)이 주변성원(54.91) 보다

표 1. 실험 1의 핵심집단 및 주변집단에 소속된 성원들이 조건별 핵심 및 주변 집단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평균

| 집단소속                | 평가대상                | 공개(b <sub>1</sub> )   |                       | 비공개(b <sub>2</sub> )  |                       |
|---------------------|---------------------|-----------------------|-----------------------|-----------------------|-----------------------|
|                     |                     | 상대평가(c <sub>1</sub> ) | 절대평가(c <sub>2</sub> ) | 상대평가(c <sub>1</sub> ) | 절대평가(c <sub>2</sub> ) |
| 핵심(a <sub>1</sub> ) | 핵심(d <sub>1</sub> ) | 64.75                 | 66.27                 | 69.05                 | 62.48                 |
|                     | 주변(d <sub>2</sub> ) | 53.05                 | 53.86                 | 60.24                 | 52.48                 |
| 주변(a <sub>2</sub> ) | 핵심(d <sub>1</sub> ) | 71.39                 | 69.70                 | 65.27                 | 74.71                 |
|                     | 주변(d <sub>2</sub> ) | 56.26                 | 56.25                 | 53.10                 | 57.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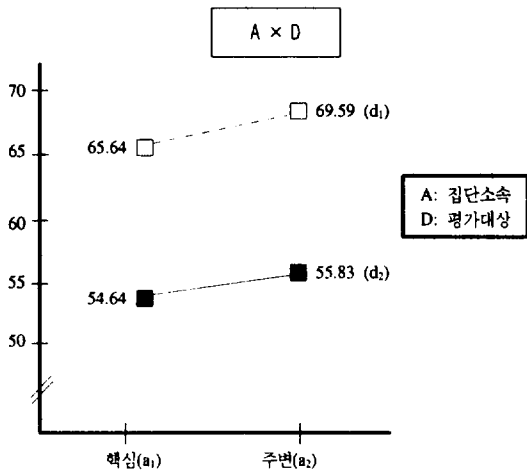


그림 1. 실험 1의 집단 소속과 평가대상에 따른 성과 평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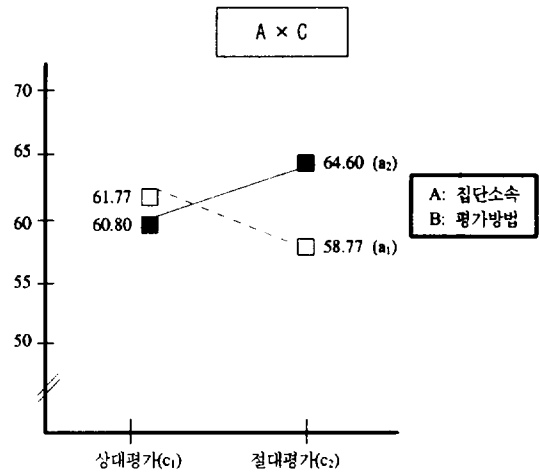


그림 2. 실험 1의 집단소속과 평가방법에 따른 성과 평정치

높은 것으로 주변집단에서도 핵심성원(69.59)이 주변성원(55.83)보다 높은 것으로 지각하여 두 집단 모두에서 핵심성원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였으나, 핵심-주변 성원의 성과편차는 핵심집단(10.73) 보다 주변집단(13.76)에서 더 높았다,  $F(1, 161)=6.87, p < .01$ . 이러한 결과는 핵심집단원의 성과가 높게 추정되리라는 것과 주변집단에서 더 큰 지각편차를 보이리라는 예언을 지지하는 것이다.

핵심-주변으로의 집단소속감은 평가방법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그림 2에서 보듯이 핵심집단은 상대평가(61.77)시에 절대평가(58.77)보다 더 높은 추정치를 보였으나, 주변집단은 절대평가(64.60)시에 상대평가(60.83)보다 더 높은 추정을 하였다,  $F(1, 161)=5.84, p < .05$ . 이러한 차이는 절대평가시에 두드러졌다,  $F(1, 161)=10.94, p < .01$  집단소속, 공개여부, 평가방법으로 이뤄진 3원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F(1, 161)=9.86, p < .01$  이 효과는 정보의 비공개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F(1, 161)=21.26, p < .001$  즉, 핵심집단은 공개조건시 상대평가(58.90)보다 절대평가(60.07)에서 더 높았고, 비공개시에는 반대로 절대평가(57.48)보다 상대평가(64.64)에서 더 높았다. 반면에 주변집단은 공개조건에서는 상대평가(63.83)가 절대평가(62.98)보다 높게, 비공개조건에서는 절대평가(66.21)가 상대평가(57.83)보다 더 높게 나왔다.

핵심-주변 집단원들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의 공개와 평가방법에 따라 핵심 및 개별성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핵심성원에 대한 평가는 공개조건에서 상대평가(68.07)에 의한 것이 절대평가(67.98)보다 높았고, 비공개조건에서는 상대평가(65.81)보다 절대평가(68.60)에서 더 높았다. 반면에 주변성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개조건에서는 상대평가(54.66)보다 절대평가(55.06)에서 더 높았고, 비공개조건에서는 상대평가(56.67)시 절대평가(55.10)보다 더 높은 결과를 내었다,  $F(1, 161)=4.38, p < .05$ . 이는 핵심성원들은 공개적이고 상대적인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F(1, 161)=10.03, p < .01$ , 주변성원들은 비공개적이고 절대적인 평가를 받을 때에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위의 결과들은 동일한 성과가 제시되더라도 핵심집단의 성과를 더 높게 추정한다는 것과 그러한 경향성은 주변집단에서 더 크게 벌어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핵심적 지위에 있는 성원들은 상대평가시에 그리고 주변적인 위치의 성원은 절대평가시에 더 편파적인 평가를 보였고, 개별 성원들 중 주변성원들은 비공개적이며 절대적인 평가 조건하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갈등을 느끼는 집단들 간의 성과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제시되어야 편파가 적은 지각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통찰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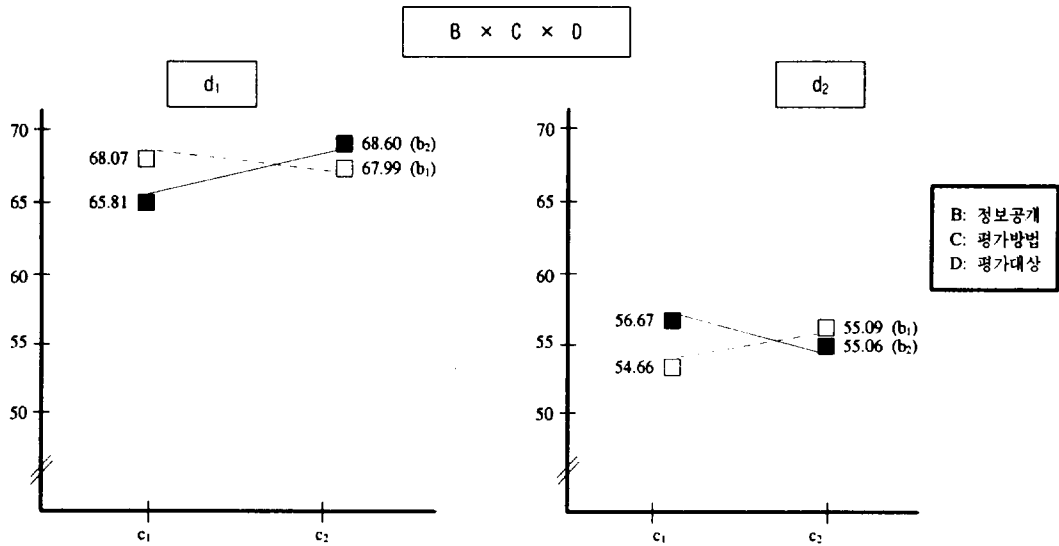


그림 3. 실험 1의 집단 소속별 공개 및 평가방법에 따른 하위집단들의 성과평정치

## 실험 2

### 방법

**실험참가자 및 설계.** 심리학관련 교양과목(산업심리학, 성과 심리학)을 이수 중인 80명의 호서대생들이 실험참가시 가산점을 주는 조건으로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한번에 4명씩 참가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2(내집단의 지위: 핵심집단 또는 주변집단) × 2(성과의존 또는 성과비의존) × 3(평가대상: 핵심성원 또는 주변성원)으로서 맨 뒤의 평가대상 요인은 반복측정인 혼합요인설계 속에 무선적으로 배치되도록(각 요인별 20명씩) 하였다.

**절차.** 실험 2의 절차는 실험 1의 절차에서 실험참가자의 반응이 공개되는지의 여부와 내외집단원들의 성과를 제시할 때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누는 점을 빼고 대신에 성과평가 대상자와 성과의존을 할지의 여부에 따른 조변이 추가되는 점이 달랐다. 그리하여 집단소속감과 성과의존의 두 요인으로 나뉘고 성과평가는 상대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성과의존의 조작은 “실험이 끝난 후에 여러분이 평가한 사람과 짝지워 두 사람의 정확성이 평균이상으로 높은 짝들에게는 1점의 보너스

를 추가로 줄 예정입니다”라고 한 성과의존 조건과 “각 개인의 추정치를 실험이 끝난 후에 종합 정리하여 정확성을 보인 정도에 따라서 4-6점 사이의 참가점수를 줄 예정입니다”라고 한 성과비의존 조건으로 나누게 하였다.

### 결과 및 논의

**실험조작 확인.**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자기가 속한 집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F(1, 81)=18.34, p<.01$ . 자신의 수학능력을 5점 척도상에서 핵심집단(3.69)이 주변집단(3.17)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고,  $F(1, 81)=14.302, p<.001$ , 다른 사람들의 수학능력은 10점 척도상에서 핵심집단(7.97)은 주변집단(6.87)보다 더 높게 추정하였다,  $F(1, 81)=33.309, p<.001$ .

**성과평가.** 핵심집단과 주변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이 성과의존 및 성과비의존에 따라 내집단원 등을 평가한 결과가 표 2에 나와 있다. 각 참가자들의 평가치를 2(집단소속: 핵심집단 또는 주변집단) × 2(성과의존: 의존 또는 비의존) × 2(평가대상: 핵심성원 또는 주변성원)인 혼합설계의 실험결과에 대한 변량분석(평가대상은 피험자내 변인)을 하였다. 그 결과 핵심성원(68.17)이



주변집단(57.05)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F(1, 81)=5.614$ ,  $p<.01$ . 이하 분석 시에 집단 소속감(A)은 핵심성원( $a_1$ )과 주변성원( $a_2$ )으로, 성과의존(B)은 의존( $b_1$ ) 및 비의존( $b_2$ )으로, 그리고 평가대상(C)은 핵심성원( $c_1$ )과 주변성원( $c_2$ )으로 표기하였다.

집단소속과 평가대상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F(1, 81) = 22.11$ ,  $p < .001$ , 핵심집단원들은 핵심성원(65.80)을 주변성원(56.90)보다 높게 보았고, 주변집단원들도 핵심성원(70.53)을 주변성원(57.15)보다 높게 보았으나, 주변성집단원들의 편차가 더 크게 나왔다(그림 4).

표 2. 실험 2의 성과평정치 평균

| 집단소속           | 핵심집단( $a_1$ ) |       | 주변집단( $a_2$ ) |       |
|----------------|---------------|-------|---------------|-------|
|                | 핵심성원          | 주변성원  | 핵심성원          | 주변성원  |
| 성과의존( $b_1$ )  | 69.00         | 57.95 | 62.60         | 55.95 |
| 성과비의존( $b_2$ ) | 72.43         | 54.81 | 68.64         | 59.48 |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집단과 주변집단에서 모두 핵심성원(68.4)의 성과를 주변성원(57.05)의 성과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F(1, 84)=18.26$ ,  $p<.01$ . 또한 주변집단(13.39)에서의 편차는 핵심집단(8.85)에서 보다 크게 나온 것이다,  $F(1, 81)=13.89$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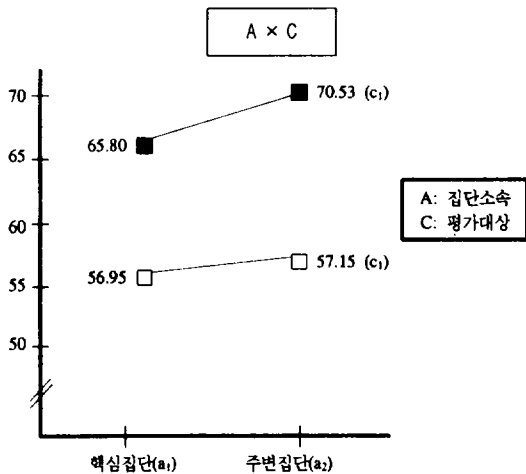


그림 4. 실험 2의 집단소속과 평가대상에 따른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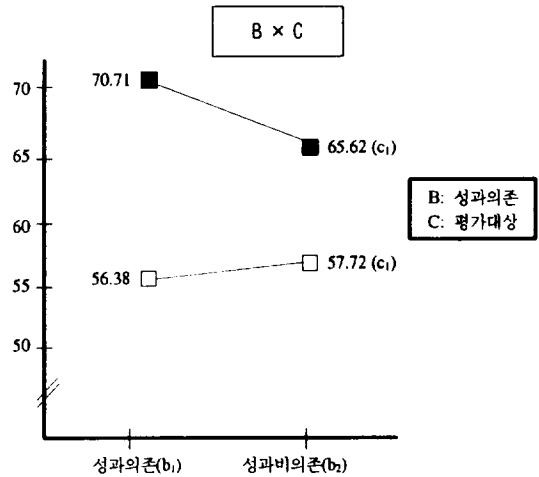


그림 5. 실험 2의 성과의존과 평가대상에 따른 상호작용

성과의존 상황(63.55)에서 성과비의존(61.67)보다 더 높게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성과의존과 평가대상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F(1, 81)=56.44$ ,  $p<.001$ , 이는 성과의존시는 핵심성원(70.71)의 성과를 주변성원(56.38)보다 아주 큰 차이로 지각한 반면 성과비의존시에는 핵심성원(65.62)과 주변성원(57.52)의 편차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성과의존시 핵심성원의 성과를 주변성원의 그것보다 더 높게 평가한 반면 성과비의존시에는 그러한 경향이 크게 줄어들음을 보이는 것이다.

집단 소속감과 성과의존, 그리고 평가대상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F(1, 81)=5.61$ ,  $p<.05$ . 그림 6에서 보듯이 핵심성원은 성과의존 조건(70.72) 성과비의존 조건(65.62)보다 더 높게 지각되었는데 단순효과분석 결과 이러한 경향은 핵심집단에서 더 현저한 것이었다,  $F(1, 38)=6.03$ ,  $p<.05$ . 한편 주변성원에 대한 평가시에는 성과의존 조건(57.72)이 성과비의존 조건(56.38)보다 다소 높았으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나,  $F(1, 81)=1.054$ ,  $p>.05$ , 단순효과분석 결과 주변집단에서 성과비의존시에 유의하게 낮은 평가를 보였다,  $F(1, 81)=5.97$ ,  $p<.05$ .

실험 2에서도 실험 1에서처럼 핵심성원의 성과가 높게 평가되었고, 주변집단의 편파의 변량이 높게 나왔다. 성과의존이 있으면 핵심성원의 성과가 더 높게 추정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주변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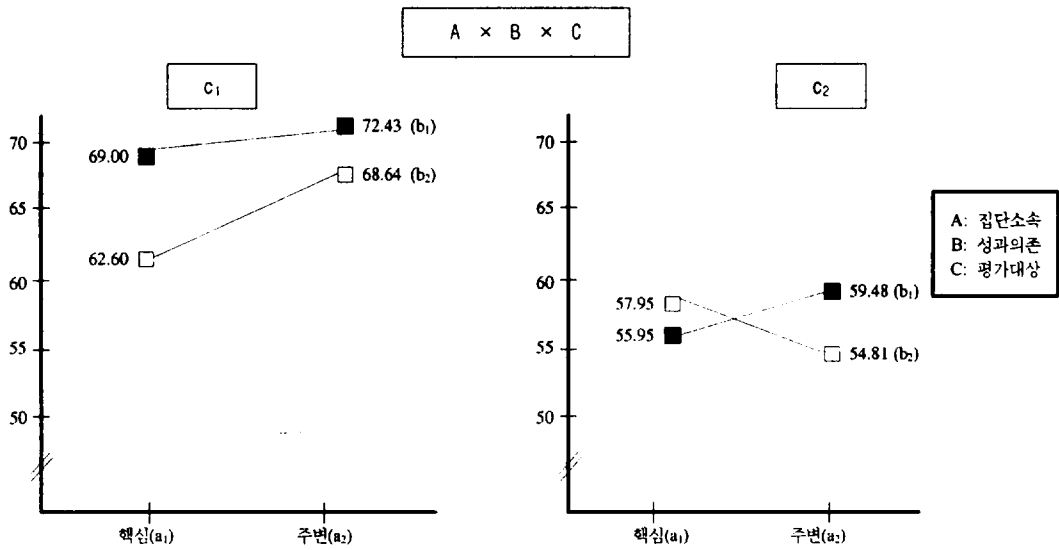


그림 6. 실험 2의 집단소속, 성과의존, 평가대상에 따른 상호작용

성과의존 여부에 따라 핵심성원의 성과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변성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성과비의존시 더 낮게 평가한 것이었다.

### 전 체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성과편파에 미치는 요인들인 집단 소속감, 정보의 공개, 평가방법, 그리고 성과의존 등의 효과를 보았다. 실험 1에서는 집단 소속감, 정보의 공개, 평가방법이 성과 편파에 미치는 효과를 보았는데 핵심 집단과 주변집단 모두 핵심성원이 한 성과를 과다 추정하여 영호남의 갈등과 남북한의 예상되는 갈등 장면에서 우월한 지역민의 성과가 우월·열등한 두 하위집단 모두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제시된 두 성원들의 성과는 동일하게 60개였으나 핵심성원(67.62)이 주변성원(55.37)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두 하위 집단원들의 편차를 보면 핵심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10.73개로서 주변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13.76개보다 적어서 주변성원들의 판단에서 오차의 변량이 크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문제 및 동서문제의 해결에서 열세지역민이 갖는 과다한 성과편차를 예상할 수 있다.

실험 1에서는 집단소속과 평가방법에 따라 성과편파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특히 주변집단은 상대평가 보다는 절대평가시에 더 높게 평가하였고, 비공개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교대상들의 성과를 함께 보는 상대평가 보다는 한번에 하나의 집단성과를 평가하며, 평가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보다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에 더 익숙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갈등 장면에서도 열세집단들의 과도한 성과편파는 이러한 정보의 비공개, 절대평가 성향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차후 집단간 화해를 위해서는 집단간의 성과를 제시할 때 가급적이면 절대평가와 비공개적인 제시가 성과편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oel, Wann, 그리고 Branscombe(1995)의 연구에서는 주변적 성원들이 자신의 결정이 공개되는 경우 더 큰 외집단 격하를 보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주변성원이 적극적으로 핵심성원들의 성과를 낮추어 보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Noel 등의 연구에서는 정보의 공개가 자기 표현적 기능을 한 것 때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변성원들이 그러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자기 표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실험 2에서는 성과의존을 기대했을 때 겪는 동기적인

힘, 즉 앞으로 함께 상호작용 할 것이라는 상황이 앞으로 평가하게 될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보게 할 것으로 보고 성과의존 상황이 성과비의존 상황보다 더 높은 성과평가를 보일 것인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실험 1에서처럼 핵심 및 주변집단 등 모두가 핵심성원의 성과를 높게 추정하여 60개의 동일한 자극에 대하여 핵심성원은 8.4개 과다추정하고, 주변성원성원은 2.9개 과소추정하여 편차는 주변성원에서 더 높게 나왔다.

성과의존 상황에서 핵심성원의 성과는 70.71로 10.71개의 큰 과다편파를 보였고, 주변성원의 성과는 56.38로 3.6개의 비교적 적은 과소편파를 보였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경쟁집단들 간에 성과의존이 필요한 때에도 핵심집단의 성과는 주변집단의 성과보다 과다추정 됨을 뜻한다. 한편, 성과비의존 상황에서는 핵심성원과 주변성원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상호작용이 적은 것으로 예상하면 내외집단 평가에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핵심집단보다 주변집단에서 핵심성원의 성과를 더 높게 보았는데, 이는 성과의존시 주변집단원들이 핵심성원의 성과를 관대하게 평가하여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를 고려한 것일 수 있다. 이는 핵심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하여 자기가치감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Cialdini 등(1980)이 말하는 반사영광즐거기(basking in the reflected glory: BIRGing)이라고 할 수 있다.

유재호(1993) 등의 결과에서처럼 성과의존 상황에서 성과편파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평가인물에 대한 호감 변화와 같은 주관적인 과제가 아닌 성과추정이라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썼기에 성과평가를 왜곡시키기 힘들었을 것이다. 오히려 외집단의 평가를 더 높게 보아서 성과의존으로 인한 도구적 이익을 도모하게 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과제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규명할 수 있는 설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핵심·주변집단의 성과가 동일한 것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현실적인 장면에서는 두 집단의 성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이한 성과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평가에서 편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중앙일보(1999. 7.28). 신지역주의현상.
- 통계청(1995). 한국통계년감.
- 통계청(1998). 한국통계년감.
- 유재호(1993). 결과의존이 내외집단간 편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기원(1994). 최소집단상황과 경쟁집단상황에서의 성과 편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2), 142-155.
- 홍기원(2000). 신지역주의에 대한 사회심리적해석. 사회과학연구, 18, 527-551.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 Addison-Wesley.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Guilford Press.
- Berscheid, E., Graziano, W., Monson, T., & Dermer, M. (1976). Outcome dependency: Attention attribution an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978-989.
- Billig, M. (1985). Prejudice, categorization, and particularization: From a perceptual to a rhetorical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79-103.
- Cialdini, R. B., & Richardson, K. P. (1980). Two indirect tactics of image management: Basking and blasting. *J PS P*, 39, 406-415.
- Crocker, J., & Luth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8.
- Darby, J. M., Gross, P. H. (1983). A hypothesis-confirming bias in labeling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20-33.
- Fiske, S. T., & Pavelchak, M. A. (1986). Category-based versus piecemeal-based affective responses: Developments in schema-triggered affect.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The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pp. 167-203). New york: Guilford Press.

- Herek, G. M. (1987). Can functions be measured? A new perspective on the functional approach to attitud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85-303.
- Hinkle, S., & Schopler, J. (1986). Bias in the evaluation of in-group and out-group performance.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 Hogg, M. A., & Abrams, D. A. (1988).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London: Routledge, Chapman & Hall.
- Katz, I., Wackenhut, J., & Hass, R. G. (1986). Racial ambivalence, value duality, and behavior. In J. F. Dovidio & S. 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 35-60). Orlando, FL: Academic Press.
- Kruglanski, A. W. (1980). Lay epistemology process and contents. *Psychological Review*, 87, 70-87.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80-498.
- Lambert, W. W., Solomon, R. L., & Watson, P. D. (1949). Reinforcement and extinction as factors in size esti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9, 637-641.
- Neuberg, S. S., & Fiske, S. T. (1987). Motivational influences on person perception: Dependency, accuracy-driven attention and individuating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36-444.
- Noel, J. G., Wann, D. L., & Branscome, N. R. (1995). Peripheral ingroup membership status and public negativity toward out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27-137.
- Peres, Y. (1971). Ethnic relations in Isra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6, 1021-1047.
-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7). Toward and intergration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erspectives on social inference: A biased hypothesis-testing model.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pp. 297 -340). New York: Academic Press.
- Ruscher, J. G., & Ficke, S. T. (1990). Interpersonal competition can cause individuation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32-843.
- Sedikides, C. (1993). Assessment, enhancement, and verification determinants of the self-evalu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17-338.
- Sherif, M., Harvey, O. J., White, B. J., Hood, W., & Sherif, C. (1961).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 Robbers Cave experiment*.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Institute of Intergroup Relations.
- Stephan, W. G. (1985). Intergroup relation.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599-658). New York: Random House.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Austin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Nelson-Hall.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J. Lawer (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Theory and research* (Vol. 2, pp. 77-121). Greenwich, CT: JAI Press.
- Tyler, T., & Sears, D. O. (1977). Coming to like obnoxious people when we must live with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200-211.
- Wann, D. L., & Branscome, N. R. (1993). Sports fans: Measuring degree of identification with their team.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Psychology*, 24, 1-17.

## **Effects of Group Membership, Evaluation Method, Publicity of Evaluation on Performance Evaluations of In/Out Group Members**

**Kiwon, Hong**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Hoseo University

Differential performance evaluations among subgroup members were tested in two experiments. Three variables of group membership, evaluation method, and publicity of evaluation were introduced in experiment 1, and group membership and outcome dependency were manipulated to explore any possibility of reducing intergroup bias in experiment 2. Core members' outcome was overestimated and peripheral members' greater deviation was confirmed in both experiments. Also, overestimation of peripheral members was significant in absolute evaluation and private condition in experiment 1. Core members' outcome was significantly biased and greater deviancy noticed among peripheral members in outcome dependence situation. But there was no comparable tendency in outcome independence situation in experiment 2. Overestimation among peripheral members was explained as a getting instrumental basking in the reflected glory by identifying core members. Some conditions, which could reduce intergroup bias when evaluating in/out groups' performance were suggested.